

MEDICA 2000

한국 공동관 출품동향 및 성과

| 본회 전자산업팀 |

1. MEDICA 개요

◇ 전시회 성격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제32회 국제 의료분야 전문 전시회(32nd world Forum for Doctor's Surgeries and Hospitals, 일명: MEDICA 2000)는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중 최대규모로써 전시면적이 18만 평방미터로 17개의 전시관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격년으로 개최하던 Interhospital 전시회를 동 전시회에 통합

하여 각종 의학관련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전시회의 질을 높이고 있다.

< 전시관별 출품분야 >

전시홀	전시분야
1~5번홀	실험실, 진단, 시약, 임상, 약학분야
6~8번홀	수술 및 병원용품, 섬유류, 소독제품, 위생 및 폐기물
9~14번홀	전자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15번홀	각종 혁신적인 기술
16번홀	의료자재 및 장비관련
17번홀	물리치료, 정형외과 분야

< 주요 참가국 및 업체 >

(단위 : 개사, m²)

국가명	2000		1999		국가명	2000		1999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벨기에	36	720	41	880	오스트리아	38	977	39	1,011
중국	53	687	29	521	스웨덴	59	1,101	43	462
핀란드	61	1,500	59	1,048	스위스	51	1,370	40	1,118
프랑스	173	3,522	155	2,188	스페인	61	1,380	54	1,183
영국	203	3,891	182	3,332	대만	67	860	58	674
이스라엘	60	972	62	922	미국	298	4,158	310	4,009
이테리	229	6,075	188	5,436	네덜란드	58	2,159	56	2,139
일본	23	683	20	576	기타	1,989	75,781	1,887	74,644
한국	54	942	41	530	합계	3,513	106,778	3,264	100,673

< 상담 및 계약실적 >

(단위 : 천불)

구 분	1999년	2000년	증가율(%)
상담실적	44,563	125,000	180.5
계약실적	4,153	22,800	449.0

◇ 전시관별 출품분야

바이어의 성향이 다양하다보니 전시관별로 분야를 나눠 효율적인 참관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참가국 및 업체

이번에 동 전시회에 참가한 국가 및 업체를 보면 65개국에서 3,513개사가 출품하였으며 이중 독일 현지업체가 1,692개사 해외업체가 1,821개사에 이르고 있다.

2. 한국관 운영

◇ 개요

본회는 국내 전자의료기기 업계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관계로 해외 유명 전시회에 대한 경험, 인력부족 및 비용부담의 과다 등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상호협조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매년 동 전시회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 공

동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도 11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독일 뒤셀도르프 메세 전시장 13번 홀에 26개사 50부스(438㎡)와 공동 상담실 10부스(1, 2층)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바이어와의 만남의 장을 가졌다.

2000년 MEDICA 전시회에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는 1,560명으로 유럽지역 870명, 중남미 지역 340명, 동남아시아 230명, 기타지역 120명이 대거 한국관을 방문하여 활발한 상담을 전개하였으며, 상담실적은 125백만불에 수출 계약액은 2,28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다.

◇ 출품동향

MEDICA 2000 한국관에 참가한 업체의 주요 제품동향을 살펴보면, 세계최초로 개발한 3차원 초음파영상진단기,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Blood Pressure Meter, Telemetro TFT LCD Patient Monitor 등 130여종의 제품으로 미국 FDA, 유럽의 CE마크 등을 이미 획득하였다.

또한 Compact한 인슐린펌프와 디지털 X-Ray시스템, Automatic

X-Ray Film Processor는 선진국 제품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앞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국관 운영 지원

MEDICA 2000 한국관내의 공동 상담실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부스가 협소한 업체를 위해서 바이어와의 미팅공간 등으로 제공키 위해 만든 상담실 1층에는 밀폐된 미팅룸 4개를 구성하여 바이어와의 미팅시 각종 음료 및 다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담실 입구에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유학생을 도우미로 채용하여 CD-ROM 배포, 업계 통역 등의 지원을 하였다.

2층은 1층보다는 다양한 휴식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간이소파, bar형태의 테이블을 설치, 바이어와의 미팅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음료 및 다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가한 업체 및 바이어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상담실 내부에 전화 및 FAX, PC 및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를 설치하여 국내, 현지에서

< 임차료 및 장치공사 비용 지원 내역 >

구분	지원기관	대상업체	지원금액	비고
무상지원	KOTRA	26개사	업체당 2,705천원	
용자지원	한국무역협회	16개사	업체당 2천만원	년리 4%, 2년거치 전액상환

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신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파견 전 보도자료 1회, 중간보도 1회 및 폐막보도 1회 등 총 3회에 걸쳐 배포하여 국내 전자의료기기 우수성과 전시회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는 임차료 및 장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했으며, 한국무역협회로부터는 해외시장 개척기금의 용자 지원을 하였다.

전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운송업체를 지정하여 공동 운송 및 통관과 전시장내에서의 물품 인수, 인계를 하였으며, 항공편 및 숙박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30%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3. 2001년 MEDICA 참가계획

본회에서는 2001. 11. 21 ~ 24(4일간)에 개최되는 MEDICA 2001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참가할 계획이다.

전시면적은 지난해보다 더 확대할 계획인데 그동안 전자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국관을 운영해 왔으나 분야를 확대하여 의료용구관까지도 한국관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전자의료기기관의 규모는 약 500㎡(30여 개사), 의료용구관은 150㎡(10여개사) 등 총 650㎡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에도 정부의 무상 지원 자금과 용자지원금의 수혜가 업계에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